

## 『幽明錄』의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에 반영된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여성형상\*

이 인 경\*\*

### 국문초록

南朝時期를 대표하는 志怪小說 『幽明錄』에는 풍부한 재재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가치관, 그리고 여성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유명록』의 사랑·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동란의 육조시기에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했던 당시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劉晨·阮肇」과 「黃原」은 ‘神(仙人)-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의 대표작이다. 타계에서 이루어진 여신과 남성 범인간의 혼인 이야기에는 六朝人들이 추구하던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었다. 불안정한 현실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당시 사람들의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타계 이상적인 여성으로 형상화하여 상상 공간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淳于棼」과 「常醜奴」는 ‘妖怪(精靈)-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의 대표작이다. 이야기 속 남성들은 구애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정체가 요괴임을 알고 여성을 죽이거나 쫓아 버리는 박정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성들은 복수 대신 순종하는 비극적 여성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당시 사회의 유가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賣胡粉女」와 「龐阿」는 ‘인간-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의 대표작이다. 사랑에 능동적이고 의사표현에 있어 거침이 없는 분파는 아가씨 모습에는 진보적 여성형상이 반영되어 있다. 離魂의 방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끝까지 방이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石氏 딸의 모습에서도 진보적 여성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의 명으로 이행되던 당시 혼인풍습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육조인들의 심리가 진보적 여성형상인 분파는 여성과 석씨 딸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幽明, 사랑, 혼인, 사회풍조, 여성형상

\* 이 연구는 단국대학교 2015년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단국대학교 강의전담조교수 / renjing999@naver.com

## —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글            | Ⅲ.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에 반영된 |
| Ⅱ.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이에 관련된 |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여성형상      |
| 전문 기록 『幽明錄』          | Ⅳ. 나오는 글             |

## I. 들어가는 글

六朝時期 약 350년은 전쟁과 왕조 전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불안한 정세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어느 때 보다 초현실적 존재인 귀신 등에 기탁하고자 마음이 커졌고, 이런 사회풍조는 志怪小說의 발전과 흥성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지괴소설은 내용이 풍부하고 제재가 광범위하여 그 내용에 담긴 사상이나 예술적 성취가 높다고 평가된다.<sup>1)</sup> 현실감과 시대감이 크게 발전하여 현실생활과 연계된 작품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가 다양하게 펼쳐져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劉義慶(403~444)의 『幽明錄』은 바로 이런 당시 지괴소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南朝시기를 대표하는 지괴소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명록』은 문학사에서 유의경의 다른 대표작 『世說新語』나 다른 지괴소설에 비해 언급된 적이 적고, 언급되었더라도 작품의 제재나 내용을 분석해 연구된 것은 많지 않다.<sup>2)</sup> 때문에 사랑·혼인과 같은 어떤 한 제재를 중심으로 『유명록』의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 당시의 사회풍조, 여성형상과 가치관을 이해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다른 지괴소설과 마찬가지로 『유명록』에는 많은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 이것들은 작품에서 가장 빼어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회자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당시 사회풍조와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유명록』은 광범위한 제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다채롭게 전개되지만 이들 내용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어떤 제재이든 간에 그 내용에는 삶, 자유, 생명 등에 대한 사람들의 강렬한 소망이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생로병사를 비롯해 길흉화복, 애정과 혼인에 이르기까지

1) 齊裕焜(지), 李騰淵(역), 「中國古代小說演變史－第1章 志怪·傳奇小說 概要－」, 『中國小說研究會報』 18, 1994, 12쪽.  
 2) 한국에서 『幽明錄』에 대한 연구는 단독 저서로서의 연구보다는 지괴소설의 하나로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卞貴南, 『漢譯經典과 佛教類志怪小說의 영향관계 小考』(『中國語文學』 41) 등과 같이 불교와 관계된 지괴소설 중심의 연구 과정에서 『幽明錄』의 불교 관련 제재가 함께 연구되고 있다. 2000년 국내에서 출판된 역사 외에는 『幽明錄』에 대한 국내연구는 미진한 편이다(張貞海 譯註, 『幽明錄』, 살림, 2000). 국외연구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육조 지괴소설연구에 대한 한 부분으로 다루어진 것이 많다(何散芬, 「魏晉南北朝志怪小說의敍事結構初探」, 『湖北經濟學院學報』 3: 6, 2006. 王天輝, 「魏晉六朝志怪小說情愛作品中的女性形象」, 『福州師專學報』 22: 1, 2002). 최근 『幽明錄』을 제재별로 구분하여 연구한 것(宋芸, 「魏晉南北朝志怪小說 《幽明錄》 題材內容分析」, 『長城』, 2013)을 살펴보면 애정고사, 현실생활, 요물, 제왕과 유명인물 등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단순히 제재별 분류를 해놓았을 뿐 내용을 분석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들 제재별 분류에 불교관련 이야기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에 대한 제재별 구분이라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사람, 신선, 귀신, 요괴나 정령들이 등장하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록』은 당시 지괴소설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명록』의 사랑·혼인 이야기를 통해 육조시기 사회풍조와 가치관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사랑·혼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형상을 통해 육조시기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형상은 전통적인 모습과 시대적 문화심리가 함께 어우러져 창출되어지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의 봉건사회는 남성 권위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아의식을 상실한 채 남성에게 주도되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소설 속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랑에 집착하고 장애를 만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육조시대 지괴소설 속 여성형상은 이와 달리 입체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그녀들은 선량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때론 대담하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혼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여성형상은 육조시기 혼인풍습에 억눌려 있던 당시 사람들의 자유연애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랑·혼인 이야기 속 여성형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당시 사회풍조와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魯迅(1881~1936)이 이 시기 지괴소설을 의식적인 창작이라기보다는 幽明間的 일을 서술한 것이라 말했듯이,<sup>3)</sup> 『유명록』도 이전시대 혹은 동시대의 이야기들을 편집하여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史傳類로 분류되었던 『유명록』과 육조 지괴소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살펴서, 이런 특징으로 인해 『유명록』에 편집된 이야기들이 곧 당시 사회와 사람들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임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秦漢시대처럼 孔孟의 道만을 지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儒·佛·道가 동시에 성행한 육조시기의 사회모습을 살펴 작품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명록』의 다양한 제재의 이야기들 중 본고에서는 사랑·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선별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풍조가 어떻게 여성형상을 통해 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명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귀신이나 요괴와 같은 제재는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에든 활용되어 다른 애정소설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이루게 한다. 사람이 사람 아닌 존재와 사랑하고 혼인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람과 귀신이 모두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육조인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유명록』의 사랑·혼인 이야기를 神(仙人) - 인간, 妖怪 - 인간, '인간 - 인간'으로 구분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풍조와 가치관이 어떻게 여성형상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魯迅, 『魯迅全集(9)』, 『中國小說史略』,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43쪽. “特多鬼神志怪之書。……亦非有意爲小說, 蓋當時以爲幽明雖殊途, 而人鬼乃皆實有, 故其敘述異事, 與記載人間常事……”

## Ⅱ.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이에 관련된 전문의 기록 『幽明錄』

### 1.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가치관

파괴와 전란이 거듭된 東漢 말에서 魏 정권 시기, 동란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이 지식인들에게 싹트기 시작하였다. 魏에서 西晉으로 이어진 정권 교체는 지식인들에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禮敎의 가르침과 계급질서를 경험케 하였다. 서진 太康(280~289) 시기 잠시 안정을 회복하였지만 士族과 皇族의 힘을 빌려 정권을 유지하려 하였기 때문에 많은 제왕들이 등장하였고, 이후 자질이 부족한 황제 惠帝의 즉위로 정세는 다시 불안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흉노 유연이 침입한 이후 북조는 北魏의 통일까지 130년 동안 끊임없이 전란이 계속되어 황하 일대가 철저히 파괴되었다. 남조는 북조에 비해 전쟁은 적었지만 동진에서 宋(420~479), 齊(479~502), 梁(503~557), 陳(557~589)으로 끊임없이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처럼 동한 말 이래 계속되어온 정치 사회적 혼란과 사족 관료 중심의 정치체제는 지식인들의 뜻을 잃게 하여 현실을 초월하고 방달한 태도를 일삼게 하거나 淸談의 세월을 보내도록 하였다. 북조에 비해 평온한 시절을 보냈던 남조의 경우에도 농업과 수공업은 비롯한 상업의 발달로 상업도시가 번영하였지만 이와 같은 경제적 번영은 귀족들의 전유물일 뿐 일반 백성들은 불합리한 세제와 요역으로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남조의 거듭된 정권교체는 모두 이전 왕조의 장군이나 권신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동란의 사회에서는 봉건의 예교와 충효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위를 누릴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식인이나 귀족들 중에는 자신의 保身을 위해 奇行을 일삼거나 逸脫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이들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無爲自然을 추구하는 老莊사상이나 解脫을 추구하는 불교사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 성행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정치 사회적 불안은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민간 신앙 뿐 아니라 도교와 불교 성행의 이유가 되었다. 혼란한 현실 사회에서는 더 이상 희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세계를 외면하거나 초월하고자, 그들의 관심을 초현실세계로 전환하여 求仙활동이나 윤회, 因果應報說에 심취하였다. 어지럽고 혼란한 사회에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심리가 결국 노장사상, 神仙사상, 불교 성행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북쪽에서는 이민족들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지속되었고, 남쪽에서는 귀족들 사이에 정권쟁탈이 거듭되었기 때문에 漢 왕조의 상징이라 할 만한 유교사상이나 전통문학은 붕괴되거나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도교와 불교는 바로 이런 정치, 사회적 혼란을 틈타 유교사상을 대신할 만큼 성행하였고, 玄學연구와 淸談사상도 지식인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것이다. 결국 유·불·도의 존립은 당시 육조사회가 빚어낸 사회풍조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또 口頭로 유전되거나 역사서에 실려 전해온 신화전설이나 민간 신앙 속 神(仙), 귀신, 妖怪 등이 속한 세계를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여 불신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실재한다고 믿거나 확

인하고자 하는 풍조가 있었다. 이 시기 지괴소설 작가 干寶(?~?)나 葛洪(284~364) 등도 幽明의 세계나 신선 세계가 존재한다고 확신하였던 사람들 이었다.<sup>4)</sup> 유교적 소양을 갖춘 陶淵明(365~427)과 유익경이 정통문학이 아닌 지괴소설을 편찬한 것도 이런 사회풍조를 대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신도 이런 사회풍조에 대해

幽와 明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상이지만 당시에는 사람과 귀신이 모두 실존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을 서술하는 것과 인간들의 일상의 일을 기재하는 것에는 원래 眞妄의 구별이 없다 여겼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sup>5)</sup> 그러니까 이들 지괴소설의 문인 작가들은 타계의 존재와 이야기들을 환상세계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목격자와 역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만 가능하다면 현실세계의 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6)</sup> 당시 일반 백성들도 신선, 귀신, 요괴 등과 같은 기이한 이야기가 실재한다고 여기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후세계와 같은 타계를 현실세계와 연속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이고, 이런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지괴소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동란으로 생명 위협과 곤궁한 생활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현실 이탈의 한 방편이자 심리적 돌파구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을 초월해 사후세계 혹은 타계로 진입해 정신적 위안을 얻고자 했던 육조시기 사람들의 갈망은 『유명록』에서도 어김없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六朝時期 전문의 기록 『幽明錄』

지괴소설의 기원과 발생은 종교나 史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sup>7)</sup> 지괴소설은 신화와 전설, 미신과 사 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들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발생하여 성행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에는 당시 사회풍조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괴소설의 이야기들이 전해진 기록들이 대부분 史書라는 점에서 지괴소설과 사적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은 사서에 산재되어 기록되었다가 이후 사서로부터 분화되고, 이것들은 다시 기이함을 추구하는 형식으로 독자적으로 편찬되어 이루어진 것이 지괴소설이다. 초기 지괴소설은 사서에서 막 분화된 까닭에 내용과 형식이 모두 역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지괴가 오랫동안 史部에 속했다가 『新唐書·藝文志』에 와서야 子部 소설가류로 자리매김하게 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8)</sup>

『유명록』은 『隋書·經籍志』와 『舊唐書·經籍志』에서 史部雜傳類로 분류되었다.<sup>9)</sup> 여기에는 『유명록』이

4) 卞貴南, 「六朝 佛教類 志怪小說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60쪽.

5) 魯迅, 앞의 책, 43쪽. “蓋當時以爲幽明雖殊途, 而人鬼乃皆實有, 故其敘述異事, 與記載人間常事, 自視固無誠妄之別矣.”

6) 卞貴南, 앞의 논문, 56쪽.

7) 齊裕焜(지), 李騰淵(역), 앞의 논문, 9쪽.

8) 魯迅, 앞의 책, 48쪽. 『幽明錄』은 『隋書·經籍志』에서 史部雜傳類에 분류되었다가 『新唐書·藝文志』에서 소설로 편입되었다고 했다.

9) (唐)魏徵等撰, 『斷句本 二十五史』,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4. 『隋書·經籍志』, 497쪽 참조. (後晉)劉昫撰, 『斷句本

외에 간보의 『搜神記』, 도연명의 『搜神後記』 등도 포함되어 있다. 『隋書·經籍志·雜傳類』에서는 지괴를 史官의 末流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으니,<sup>10)</sup> 당시의 지괴소설은 창작의 산물로서가 아닌 사적의 한 부류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해 董乃斌(1942~)도 지괴가 단편적이고 기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이 개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견문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文 보다는 史에 가깝다고 하였다.<sup>11)</sup> 노신도 이런 관점에서 짧아서 隋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많은 귀신 관련 책들 중 문인들이 편찬한 것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신성시하거나 선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그렇다고 이것들이 의식적으로 창작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sup>12)</sup> 그러니까 『유명록』을 비롯한 지괴소설의 사전류 분류는 사람과 귀신이 모두 실존한다는 육조의 사회 풍조를 반영하여 기이한 일과 인간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일부 지괴소설들이 史官에 의해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劉宋시기 왕족이었던 유의경은 육조시기 성행한 史傳 저작의 분위기나 동시대 혹은 전시대의 다른 책에서 이야기를 채록하는 당시 저작풍토에서 휘하의 문인들과 함께 전후 시대를 아우르는 견문을 기록하여 『유명록』을 편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명록』은 사전의 서술 방식에 상상력이 기초가 된 소설 양식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단편서술 보다는 좀 더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의 서사성이 강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13)</sup> 편폭이 길어진 이와 같은 특징은 서술방식이 史에서 文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작품은 분명히 이야기의 흥미와 완결성에 신경을 써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명록』에는 육조시기 다른 지괴소설처럼 사전의 서술 특징이 여전히 남아 있어 편찬자들의 견문이 그대로 기록되는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육조시기 사회풍조와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二十五史』,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4. 『舊唐書經籍志』, 959~960쪽 참조.

10) 『隋書·經籍志』, 497쪽. “허황되고 괴이한 말들을 늘어놓아 잡다하다. 그 본원으로 보건대 사관의 말류라 여겨진다(難以虛誕怪妄之說. 推其本源蓋亦史官之末事也.).”

11) 董乃斌, 『中國古典小說的文體獨立』,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157쪽(劉義慶 撰, 張貞海 譯註, 『幽明錄』, 서울: 살림, 2000, 19쪽 재인용).

12) 魯迅, 앞의 책, 43쪽.

13) 卞貴南, 앞의 논문. 여기에서는 漢末 이후 지괴 소설을 서술 방식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것은 불교전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말·위진 초기와 남북조·당대 지괴를 구분하여, 전자 시기에는 서술 방식이 설명을 위주로 한 특징이 있으며 그 대표작으로 『神異經』, 『十洲記』, 『博物志』 등을 언급하였고, 후자 시기에는 서술 방식이 설명보다는 서사에 가까운 지괴적 특징이 있으며 그 대표작으로 『幽明錄』, 『冥祥記』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搜神記』는 이들 작품의 중간적 위치에 해당되며 서술 방식의 변화는 이 작품을 통해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당시 성행하였던 불교의 영향으로 서사에 가까운 지괴 작품들이 『幽明錄』에 많이 포함되었다고 한 것이니 이것은 종교적 관념에서 지괴소설을 설명한 것이다. 물론 불교교사의 서상성이나 인과응보 등의 내용이 지괴소설에 끼친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서술방식의 변화가 단순히 불교 한 가지의 영향이라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지괴소설은 다수의 문인 작가들에 의해 편찬 기록되면서 종교를 비롯한 사회풍조와 작가들의 편찬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조 지괴소설의 대표작 『幽明錄』은 분명 이전 지괴소설과는 차별화되는 史 영역 보다는 文 영역에 가까운 작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별 서술방식 변화에 관한 위의 구분은 참고할 만하다.

### Ⅲ.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에 반영된 六朝時期 사회풍조와 여성형상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는 『유명록』의 내용 중 가장 재미있고 빼어난 이야기에 속한다. 인간의 혼인과 사랑 이야기에 지괴의 주된 제재인 기이한 존재들을 등장시켜 그들과의 결합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의 사랑과 혼인 이야기에 신이나 요괴가 등장하거나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야기는 신기한 분위기로 탈바꿈된다. 따라서 유명한 존재들이 어우러져 전개되는 이들 이야기에는 육조시대 변화된 봉건사회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명록』에는 사랑·혼인 관련 이야기가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들 이야기를 ‘神(仙人) - 인간’, ‘妖怪(精靈) - 인간’, ‘인간 - 인간’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풍조와 여성형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神(仙人) -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이상적 여성형상

「劉晨·阮肇」는 ‘신(선인) - 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들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닥나무 껍질을 채집하기 위해 天台山에 올라갔던 유신과 완조는 길을 잃고 굶어죽을 뻔 했다가 산 위 복숭아나무를 발견해 그것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내려오던 길에 계곡물에 떠내려 오던 순무잎과 대접을 보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산을 하나 넘어가니 큰 계곡물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두 여인이 있었다. 그녀들은 그릇을 들고 나오는 두 사람을 보고 웃으며 “유신, 완조 두 낭군께서 우리가 방금 잃어버린 그릇을 가져오셨군요.”라고 했다. 처음 보는 여인들이었으나 자신들의 성을 불러준 탓에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져 서로 반갑게 마주했다. 여인들은 “두 분께서는 왜 늦게 오셨나요?”라고 하며 집으로 두 사람을 청했다.

여인들의 집 지붕은 동기와가 얹혀 있었고, 집의 남쪽 벽과 동쪽 벽 가장자리에는 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에는 금방울과 은방울이 섞여 있었다. 침상 머리마다 열 명의 시녀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두 사람은 깨와 쌀로 지은 밥, 산양포, 쇠고기를 대접받았는데 매우 맛있었다. 식후에는 술을 마셨다. 한 무리의 여인들이 복숭아 서너 개를 들고 와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낭군이 오신 것을 축하해요.”라고 했다.……저녁이 되자 그들에게 각각의 침소에 따로 들게 하고, 두 여인도 이에 마찬가지로 따로 침소에 들었다. 여인들의 맑고 부드러운 소리에 유신과 완조 두 사람도 근심을 잊어버렸다.

열흘이 지나고 두 사람이 돌아가기를 청하자 여인들은 “당신들께서 이곳에 오신 것도 운명에 따른 것일진대 어찌 돌아가려 하시는지요?”라고 말하니, 두 사람은 반년을 더 머무르게 되었다.……두 사람은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돌아갈 것을 다시 청하니 여인들은 “당신들께서 속세에서 치러야 할 죄 값이 아직 남아 있어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군요.”라고 답했다. 이전에 불렀던 삼사십 명의 여인들을 불러 연회를 열고 풍악을 울렸다. 여인들은 함께 유신과 완조를 전송하며 나갈 길을 알려주었다. 밖으로 나와 보니 친척과 친구들은 이미 죽고 없었고 마을과 집들도 변해 예전과 같지 않았다.

거우 그들의 7대손을 찾아 물어보니 조상님들이 입산하셨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sup>14)</sup>

위 이야기에서 유신과 완조는 현실세계의 인간이며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여인은 仙人이다. 현실 세계의 두 사람은 낯선 타계의 공간을 아름다운 여인들의 인도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도달한 타계는 낯설지가 않다. “동기와를 엮은 지붕에 남과 동의 벽 쪽에 침대가 놓여 있고, 그것은 금방울, 은방울로 장식되어있는” 집의 모습이며, 깨를 섞은 밥, 산양포 등과 같은 음식들은 현실 세상에서도 익숙하게 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인 두 사람을 환대하는 모습 역시 익숙하다. 마치 고대 중국 사회를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술과 음식을 내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儒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손님접대의 한 덕목이기에, 이와 같은 손님맞이 모습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sup>15)</sup>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 유신과 완조가 진입한 타계는 현실과 달리 평화롭고 정겨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이와 같은 선계의 정경에는 불안정한 현실 생활에서 실현될 수 없는 평화로운 삶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골만이 평원을 덮고 있네. 길에 굶주린 아낙네 있는데, 안고 있던 아기를 풀밭에 버리네. 뒤에선 울부짖는 소리 들리는데도, 눈물 뿌리며 돌아오지 않고 홀로 떠나가네. 이 몸이 어디에서 죽을지 알지 못하겠거늘 어찌 둘이 모두 온전할 수 있겠소?”라고 한 王粲(177~217)의 말처럼,<sup>16)</sup> 육조시기 백성들은 육체와 정신이 모두 피폐해진 상태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기에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안정된 삶,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가상의 세상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신과 완조를 마을로 인도한 두 여성 선인의 모습도 낯설지가 않다. 그녀들은 선인 신분이지만 西王母와 같은 초현실적 이미지의 여신형상이라기 보다는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고”, “말소리가 맑고 부드러운” 온유한 모습을 하고 있다. 때문에 그녀들은 고대 중국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던 이상적인 여성형상에 가깝다. 하지만 그녀들은 봉건사회 여성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순종을 미덕으로 삼던 당시 여성들과는 달리 사랑과 혼인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유신과 완조를 만나 직접 그들을 초대하고 이후 부부의 연을 맺기까지 그녀들의 言行은 봉건사회 여성과는 분명 다르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타계라는 공간과 선인이라는 설정이 있지만 이들의 혼인과 사랑 이야기에는 자유연애 혹은 이상적 혼인에 대

14) 『유명록』의 원문인용은 “(南朝宋)劉義慶, 鄭晚晴輯注, 『幽明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과 “李劍國 輯釋, 『唐前志怪小說輯釋(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을 저본으로 하여 작성한다. 이후 條로 이야기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劉晨·阮肇」, “得度山出一大溪, 溪邊有女子, 資質妙絕, 見二人持杯出, 便笑曰: 「劉阮二郎, 捉向所失流杯來。」晨肇既不識之, 緣二女便呼其姓, 如似有舊, 乃相見忻喜, 問: 「來何晚邪?」因邀還家。其家銅瓦屋, 南壁及東壁各有一大床, 皆施絳羅帳, 帳角懸鈴, 金銀交錯, 牀頭各有十侍婢。……食胡麻飯, 山羊脯, 牛肉, 甚甘美。食畢行酒, 有一群女來, 各持五三桃子, 笑而言: 「賀汝婿來。」……至暮, 令各就一帳宿, 女往就之, 言聲清婉, 令人忘憂。十日後欲求還去, 女云: 「君已來是, 宿福所牽, 何復欲還邪?」遂停半年。……更懷悲思, 求歸甚苦。女曰: 「罪牽君, 當可如何?」遂呼前來女子有三四十人, 舊會奏樂, 共送劉阮, 指示還路。既出, 親舊零落, 邑屋改異, 無復相識。問訊得七世孫, 傳聞上世入山迷不得歸。”

15) 소혜왕후 한씨(지), 陸完貞(역), 『內訓』, 서울: 열화당, 1989, 31쪽.

16) 金學主, 『中國文學史』, 서울: 新雅社, 1993, 177쪽 재인용. 王粲, 「七哀詩」一, “白骨蔽平原。路有飢婦人, 抱子棄草間。顧聞號泣聲, 揮涕獨不還。未知身死處, 何能兩相完?”

한 갈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육조 시기 유가의 도와 전통적 예교는 진한시기에 비해 권위가 상실되었고, 이런 사회풍조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유신·완조」이야기에서 타계의 평화로운 마을과 이상적인 혼인, 그리고 여성형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과 완조는 이상적 공간인 타계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암울한 현실세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이것은 凡人은 신의 경계지역인 타계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17)</sup> 우연히 선계나 타계로 진입했던 인물이 현실세계로 환속해 다시 출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위와 같은 이야기 전개는 다른 지괴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때문에 ‘현실세계→타계로 진입→현실세계로 환속’한다는 형식의 이야기 전개는 신선세계나 이상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된다.<sup>18)</sup> 또 이것은 서한 말에서 동한 초 求仙의 열풍과 함께 仙話의 수집과 정리, 나아가 의식적인 선회 창작까지 이루어졌던 사회적 풍조와도 관계 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다시 말해 어떤 현실세계의 인간이 계기를 통해 타계에 진입했다가 다시 환속한다는 이런 이야기에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을 초월한 세상, 타계에 대한 갈망은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일탈하고자 하는 심리가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과 비슷한 전개를 보이는 「도화원기」 역시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동경했던 작자의 이상이 타계 桃花源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 작품이다. 「도화원기」와 『유명록』은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두 작가에 의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 작품에 반영된 사회풍조와 가치관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단지 「유신·완조」에는 타계 공간에서 여성 선인과 남성 범인간의 혼인 이야기가 담겨있어 이것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유신·완조」이야기에는 유명을 함께 연계해 인식 하였던 당시의 사회풍조와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黃原」, 「河伯嫁女」에서도 일반 남성이 우연히 타계의 여성을 만나 초대를 받고 그곳에서 혼인을 한다. 이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 역시 그 신분이 선인 혹은 여신으로, 그녀들은 하나같이 선녀처럼 아름답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黃原是 개를 따라 어떤 동굴을 통해 진입한 타계의 세상은 현실사회에서도 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다. 화나무와 버드나무가 사거리에 늘어서있고 수십 채의 집들이 나란히 서 있는 그 마을을 오가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자태가 빼어나다. 북쪽 대궐 문 앞을 지키던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황원을 발견한 후 “검은 개가 묘음 아가씨의 서방님을 모셔왔네.”라고 말한다.<sup>20)</sup> 시녀들은 또 “성년이 된 여식이 있으니 그 아이가 그대의 아내가 될 운명입니다.”라고 태진 부인의 말씀을 전한다.<sup>21)</sup> 저녁이 되자 황원은 운명으로 접지되었다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아름다운 자태에 온유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었다.

17)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487~488쪽. 『搜神記』 ‘張璞 이야기’의 ‘鬼神非匹’처럼 사람과 신은 짝이 될 수 없다는 종교 관념이 人神연애에 있어 사랑의 장애요소로 작용된다고 했다.

18) 劉明華, 「理想性·神秘性·歷史眞實-對“桃花源詩并記”의多重解讀」, 『文學遺產』 1, 1999, 94쪽 참조.

19) 劉向(지), 김장환(역), 『列仙傳』, 서울: 예문서원, 1996, 22~24쪽 참조.

20) 「黃原」, “此青犬所致妙音囑也!”

21) 「黃原」, “有一女年已弱笄, 冥數應爲君婦.”

개는 몹시 느리게 달렸다.……어떤 동굴에 이르게 되어 그 속으로 백여 보를 들어가니 해나무와 버드나무가 늘어서있는 사거리와 집을 둘러싼 긴 담장이 나타났다.……황원을 발견한 두 사람은 “검은 개가 모음 아가씨의 서방님을 모셔왔네.”라고 하였다.……모음의 용모는 귀엽고 아름다웠으며 시녀들도 모두 어여뻐다.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오래된 부부처럼 음식을 함께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이 지나서 황원이 집에 돌아가 소식이라도 전하고자 하니 모음이 말하기를 “신과 사람은 길이 달라 함께 오래 있을 수 없답니다.”라고 했다. 다음 날 모음은 패옥을 풀어 황원에게 주고 계단 앞까지 전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후의 만남은 기약할 수 없지만 낭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시녀 네 명이 그를 전송했고, 만나절도 되지 않아 황원은 집에 도착했다.”<sup>22)</sup>

「황원」은 여성 선인 妙音과 황원의 사랑과 혼인이야기이다. 황원이 타계의 여성 모음을 만난 계기는 황원 이 개를 따라 어떤 동굴에 이르게 되고 이곳을 통해 타계로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동굴은 현실세계와 타계를 구별하는 장소인 동시에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와의 폐쇄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좁고 진입하기 어려운 길을 설정하기 마련인데,<sup>23)</sup> 이런 장치를 통하게 되면 타계에 대한 동경이나 상상을 극대화되어 그 공간만의 독립성과 은폐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계로의 진입을 위한 이와 같은 장치는 장애를 상징하지만 이런 상징물을 통과해 타계로 진입한다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 이상적 세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유신·완조」와 마찬가지로 황원이 진입한 타계의 세상 또한 선인들의 세계라기보다는 “해나무와 버드나무가 네거리에 늘어서있는”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현실을 벗어나 타계에 진입했지만 현실세계에도 있을법한 이와 같은 모습은 “토지는 평평하고 넓었으며 가옥들은 번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기름진 전답과 아름다운 연못 그리고 뽕나무와 대나무 따위도 있었다. 길들은 동서남북으로 번듯하게 뚫려 있다.”는 도연명이 바라는 세상, 도화원과 너무나 유사하다.<sup>25)</sup> 결국 당시 육조인들이 동경하는 세상이란 현실세계에서는 접할 수 없는 어떤 비현실적 환상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사람들과 정겹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범한 것 같지만 이런 보통의 삶조차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였기에 초월적 공간과 존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황원은 꿈에 그리던 이상적 여성을 타계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그는 환대를 받으며 타계에 진입하고 미리 인연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그곳에서 짝을 접지 받아 아름다운 모음과 혼인을 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자신의 패옥을 전해주며 눈물로 전송하는데,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을지라

22) 「黃原」, 犬行甚遲,……至一穴, 入百餘步, 忽有平衢槐柳列植, 行牆廻市。……見原, 相視而笑: “此青犬所致妙音壻也!”……妙音容色婉妙, 侍婢亦美。交禮既畢, 宴寢如舊。經數日, 原欲暫還報家, 妙音曰: “人神異道, 本非久勢。”至明日, 解珮分袂, 臨階涕泗: “後會無期, 深加愛敬,……” 四婢送出門, 半日至家。

23) 金錫夏,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서울: 日新社, 1973, 111쪽.

24) 황폐강, 『한국서사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175~176쪽. 바위나 동굴 뿐 아니라, 이를 표상으로 한 괴물의 입, 이를 가진 굴 등, 타계로 진입을 위한 이런 설정들은 문학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25) 「桃花源記」,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도 “낭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자신을 떠나는 남편에게 마음을 전한다. 이런 묘음의 모습은 남편에게 순종하던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여성형상이라 할 수 있다. 공맹의 도만을 요구하던 이전시대와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묘음은 선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현실세상의 여성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것이다.

이 외 「하백가녀」에서도 한 평범한 남성이 타계에서 河伯 신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 劉宋시기 한 남성이 날이 더운 탓에 호숫가에 들어갔다가 그만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나이 열여섯, 열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와 소년을 만나 타계로 진입하게 된다. 다른 人神 사랑 이야기에서처럼 「하백가녀」 이야기의 남성 역시 익숙한 마을 모습의 타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백 신의 딸을 만나 혼례를 올리게 되고 이후 남성은 다시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아름다운 하백 신의 딸과 일반 남성이 타계에서 혼인한 후 남성은 다시 환속하게 된다는 「하백가녀」이야기는 앞의 두 人神 사랑이야기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하백이 “내게 어린 딸이 있는데 제법 총명하니 그대의 짝으로 주겠네.”라 하며,<sup>26)</sup> 평범한 이방인 남성과 자신의 딸의 혼인을 주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황원이 태진 부인의 말로 운명으로 점지된 묘음을 알고 그녀와 혼인하게 된 이야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하백가녀」에서는 하백이 아버지 입장에서 딸의 혼인을 주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이야기보다는 현실감이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봉건사회의 혼인 풍습이 묘음이나 하백의 딸의 혼인 이야기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 주선으로 남녀가 맺어지는 당시 사회풍조처럼 이 이야기 속 여성은 하백 신의 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의해 평범한 타계 남성과 혼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신-인간’ 사이 사랑과 혼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타계라는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현실 세상과 유사한 사회풍조와 혼인풍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하백의 딸과 묘음은 신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운명이든 부모의 주선이든 간에 정해진 남성을 만나 그들과 혼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조 시대 행해지던 혼인풍습이 人神사이 사랑과 혼인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혼란한 현실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적 혼인에 대한 갈망도 반영되어 있다. 자신들의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타계 이상적인 여성으로 형상화하여 상상의 공간에서라도 구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남성들이 진입한 타계에서 만난 여성들은 하나같이 자태가 빼어나고 온유하며 순종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하백 딸은 “금사발과 사향 주머니를 남편에게 정표로 주며 흐느껴 이별했고, 그에게 돈 십만 전과 세 권의 처방전을 주기”도 하였고,<sup>27)</sup> 묘음은 “이 후의 만남은 기억할 수 없지만 낭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진다.”며 눈물 흘리며 전송하였고, 유신과 완조의 아내들은 풍악을 울리며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다. 또 유신과 완조가 만난 여성 선인은 사랑과 혼인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신-인간’의 사랑과 혼인 이야기에는 불안정한 생활을 벗어나고자 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타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은 여성형상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26) 「河伯嫁女」, “僕有小女孩, 乃聰明, 欲以給君箕箒。”

27) 「河伯嫁女」, “婦以金甌麝香囊與婿別, 涕泣而分, 又與錢十萬, 藥方三卷。”

## 2. ‘妖怪(精靈) - 인간’의 사랑, 그리고 비극적 여성형상

사람과 요괴의 사랑과 혼인 이야기는 『유명록』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귀신과 요괴는 자연계의 비정상적인 존재 혹은 사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이나 요괴는 어느 한 쪽이 우월하다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인간의 사랑이란 그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사랑 이야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으로 변신한 요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에게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면서도 복수 대신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는 비극적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괴 대부분은 개, 여우, 수달과 같은 동물들이 인간으로 변신하여 인간과 사랑하고 혼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해 하나같이 진지하게 그들의 사랑에 임하기 때문에 요괴와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물에서 인간으로 둔갑한 요괴는 신이나 신선처럼 타계의 존재는 아니지만 현실세계의 정상적 존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이야기에는 초현실적 세계에 대한 환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작품 속 요괴형상에는 만물이 오래되면 그 精이 모두 사람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여겼던 고대 중국인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sup>28)</sup> 이런 이유로 신력을 얻은 사물이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이들 형상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소망을 투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요괴 - 인간’의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괴들은 대부분 자색을 겸비한 여성으로 변신해 남성에게 다가가 애정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여성들의 능동적인 구애와 애정표현으로 남녀는 맺어지지만 마지막에 본모습이 밝혀지면 여성들은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요괴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인식이 반영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妖’에 대해 『左傳』에서는 “땅에서 비정상적인 사물이 妖이다.”라 하였고, 이에 대해 杜預는 “땅의 비정상적 사물은 그 본성을 잃게 된 무리들”이라 설명하였다.<sup>29)</sup> 그러니까 妖란 비정상적 존재라 생각한 것이다. 『說文解字』에서는 ‘怪’를 “기이한 것”이라 풀이하였으니,<sup>30)</sup> 妖怪란 서로 비슷한 의미의 글자가 함께 쓰여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李劍國(1943~)은 요괴와 비슷한 명칭으로 精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精에 대해 “사람들 이외의 사물이 영혼이나 신력을 얻게 되면 요괴가 되므로, 精怪나 妖精으로 合稱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31)</sup> 결국 요물이든 정괴이든 간에 이들 존재는 사람과 구별되며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 기괴한 일을 행하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요괴와 인간의 사랑 이야기 대부분이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들 이야기에선 또한

28)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96. 「登陟」, “萬物之老者, 其精悉能假托人形.”

29) 李學勤 主編, 『春秋左傳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宣公十五年」, “地反物爲妖.”에 대해 杜預는 “群物失性.”이라고 설명했다.

30) 臧克和·王平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異也.”

31) 李劍國, 앞의 책, 17쪽. “精……人以外的事物獲得靈魂、神力而能興妖作怪, 故而稱作精。精也常與妖、怪合稱爲精怪、妖精。”

여성에 대한 남성의 본능과 이상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 작품이 「淳于矜」과 「常醜奴」이다.

① 외관사 앞에 사는 순우궁은 희고 깨끗한 용모의 젊은이이다. 어느 날 손님을 전송하러 석두성 남쪽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반해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성 북쪽 모퉁이에서 사통한 후 헤어졌다.……순우궁이 여종을 시켜 여자 쪽 부모의 뜻을 물었더니 그들이 허락했다. 여인이 여종에게 은 백 근과 비단 백 필을 가져가게 하니, 그것으로 순우궁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둘 태어났고, 순우궁도 비서감이 되었다.……며칠 뒤 사냥꾼이 지나다가 순우궁을 방문했는데, 사냥꾼 개 수십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어 여인과 아이들을 물어버렸더니 그들 모두 너구리로 변했고, 비단과 금은은 모두 잡초나 죽은 사람의 해골과 뱀뱀기로 변했다.<sup>32)</sup>

② 하동 사람 상추노는 장안현에 살며 부들을 꺾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는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호숫가에서 부들을 뽑다가 날이 저물면 텅 빈 밭에 들어가 자곤 했는데, 어느 날 해가 막 저 어둑어둑할 즈음 자색이 빼어난 여인 한 명을 보았다. 여인은 작은 배에 순채를 싣고 상추노의 앞을 지나가다가 그의 집에서 자고 가게 해달라고 했다. 상추노는 여인을 유혹해 불을 끄고 함께 누웠는데 여인의 몸에서 비린내가 났고 손가락도 너무 짧은 것이 이상해 요괴가 아닌지 두렵고 의심이 들었다. 여인은 상추노의 심사를 파악하고 문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더니 잠시 후 수달로 변했다.<sup>33)</sup>

①과 ②의 순우궁과 상추노는 모두 현실세계의 평범한 남성들이다. 이들은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자색이 빼어난 여성의 모습에 두 남성은 한 눈에 반해 그 여성을 취하고자 한다. ①에서 순우궁과 여성은 혼인의 절차를 통해 부부가 되고 자식도 얻게 되지만, ②의 상추노는 여성을 유혹해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여성이 요괴임을 직감하고 쫓아 보낸다. 혼인여부나 남녀의 애정과 상관없이 이 두 이야기 속 남녀는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남성이 한 눈에 반한 여성들이 너구리, 수달과 같은 동물들이 사람으로 변신한 요괴였기 때문이다. 혼인한 부부이든 한 눈에 반한 상대이든 간에 남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같이 자색이 빼어났던 그 여성들은 요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자 남성들은 여성들을 적대적 대상으로 여겼다. 본래 요괴였다고 하지만 여성으로 변신한 그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진지하게 연인으로 남성을 대했으며 사랑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성들은 오히려 자신이 배신을 당한 것처럼 상대를 적대시하며 처벌하거나 쫓아 버린다. ②의 이야기에서는 그나마 목숨을

32) 「淳于矜」, “瓦官佛圖前淳于矜年少潔白, 送客至石頭城南, 逢一女子, 美姿容, 矜悅之, 因訪問, 二情既和, 將入城北角, 共盡欣好, 便各分別。……矜便令女婢問其父母, 父母亦懸許之。女因敕婢取銀百斤, 絹百匹, 助矜成婚。經久, 養兩兒, 當作祕書監。……經少日, 有獵者過覓矜, 將數十狗, 徑突入, 齏婦及兒, 竝成狸, 絹帛金銀竝是草及死人骨蛇魅等。”

33) 「常醜奴」, “河東常醜奴寓居章安縣, 以採蒲爲業。將一小兒, 湖邊拔蒲, 暮恒宿空田舍中, 時日向暝, 見一女子, 容姿殊美, 乘一小船, 載蓴徑前, 投醜奴舍寄住。醜奴嘲之, 滅火共臥, 覺有腥氣, 又指甚短, 惕然疑是魅。女已知人意, 便求出戶, 變而爲獺。”

보전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상추노가 여성 요괴를 배려했지만, ①의 이야기에서는 본 모습이 밝혀지자마자 순우공은 여성 요괴와 그 자식들을 모두 죽여 버린다.

이처럼 요괴-인간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정체를 알게 되면 이전 여인과의 사랑은 한 순간에 증오와 적대감으로 변해 여성을 죽이거나 매정하게 쫓아 버린다. 물론 이것은 요괴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인식이 반영된 탓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변해버린 남성의 박정한 면모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반면 요괴 신분의 여성은 처음부터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정한 남성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지만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여성 요괴들의 이런 모습은 고대 중국의 봉건사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형적인 여성형상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습은 비록 여성 요괴지만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당시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괴-인간의 사랑 이야기 속 남성들도 용모와 자태가 빼어난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소망하고, 이에 부합되는 여성을 만나면 그들을 자신의 여자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그녀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이전 사랑하던 마음은 한 순간에 사라져 매정하게 돌변하고 그녀들을 살해하기도 한다. 이것은 아름다운 여성을 갈망하는 남성의 본능 뿐 아니라 이에 순응하는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으로 변신한 여성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선택한 남성에게 해를 끼친 적도 복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모습은 다양하지만 인간으로 변신해 요괴로 등장하는 여성형상에는 당시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여성상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이야기 외에 「鷄舍香」에서는 수달, 「蘇瓊」에서는 흰 고니, 「飛升」에서는 너구리 등이 여성으로 변신해 남성과 만나 사랑을 나눈다. 이들 이야기 역시 위 ①, ②의 경우처럼 아름다운 여성에게 반한 남성이 구애하여 서로 사랑하지만 이후 여성의 정체가 드러나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요괴-인간의 사랑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의 구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사랑 표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①의 여성은 순우공의 구애를 받아들여 사통하였고, ②의 여성은 먼지도 상추노의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비승」에서 비승의 상대 여성 역시 “아! 좋은 인연 만났으니 오늘 밤 꿈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라.”, “우리의 환락을 기다려요. 오늘 밤의 즐거움을 기다려요. 우리의 만남이 비록 짧으나 마음속으로 이미 그대와 맺어졌어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남성을 유혹하였고,<sup>34)</sup> 「소경」에서 한 젊은이가 만나게 된 여성 역시 “한 번도 여인과 밀회를 나누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요?”라는 말을 건넨 후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젊은이의 집에서 사랑을 나누게 된다.<sup>35)</sup> 이처럼 요괴-인간의 사랑 이야기 속 여성들은 남성이 꿈에 그리는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봉건사회 여성들과는 달리 사랑에 있어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다시 말해 기존 봉건사회와는 달라진 가치관의 변화가 요괴 여성형상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요괴-인간의 사랑 이야기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유가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조시기 사람들의 갈망이 박정한 남성에게 대한 비극적 여성형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4) 「飛升」, “嗟我邊良契, 寄祈霄夢間。”, “佇我風雲會, 正俟今夕游, 神交雖未久, 中心已綢繆。”

35) 「蘇瓊」, “亦復有桑中之歡邪?”

### 3. ‘인간-인간’의 사랑, 그리고 진보적 여성형상

『유명록』의 인간-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는 이야기 전개에 있어 다른 유형의 사랑 이야기와 차이점이 있다. 자신의 표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재산, 집안 같은 조건이나 상황들은 두 사람의 사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혼인에 대한 이와 같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는 육조 당시 사회풍조와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된 性의 통속화나 사상 해방의 영향이라고 한다.<sup>36)</sup> 이 시기 남녀는 이미 풍채나 용모로 연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풍채와 용모에 반해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는 신분이나 조건 등을 초월해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급한 여신-남성, 여성 요괴-남성의 사랑·혼인 이야기에서도 연정과 혼인의 대상을 남녀가 직접 선택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남녀가 서로의 풍채나 용모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 전개는 인간-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賣胡粉女」와 「龐阿」는 이런 이야기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분을 팔고 있던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 첫눈에 반한 어느 부잣집 청년이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매일 분을 산다는 구실로 그 여인을 만난다. 말없이 매일 분을 사러 오는 한 남자를 이상하게 여긴 여인이 “君께서는 이 분을 사서 어디에 쓰시는지요?”라고 묻자 남자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표현할 용기가 없었소. 하지만 항상 그대를 보고 싶어 이런 방법으로나마 그대를 보고 가곤 한 것이요.”라 고백을 했더니 여인은 감동하여 몰래 만날 것을 허락한다.<sup>37)</sup>

해질녘이 되어 여인이 과연 도착하니 청년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인의 팔을 잡으며 “오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졌군요.”라 말하며 기뻐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여자는 두렵고 놀란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 자리에서 도망갔고 이튿날 분 가게로 되돌아 왔다.……발인 날이 되자 상자 안에서 크기가 똑같이 포장되어 쌓여있는 분 100여 개를 발견하고 청년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죽인 자는 분명히 이 분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년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분을 팔고 있는 가게를 돌며 분을 샀다.……관아에서 재판받을 때 여자는 “소녀가 어찌 더 이상 목숨을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청컨대 죽기 전에 시신 앞에 가 실컷 올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현령이 허락했다. 여인은 바로 청년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어루만지며 통곡하며 “불행히도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만약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면 죽는나 해도 무슨 원망을 하겠는지요?”라고 하였더니 청년이 갑자기 눈을 활짝 뜨며 다시 살아났다. 청년은 사람들에게 사실을 모두 설명했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자손을 많이 두었다.<sup>38)</sup>

36) 王天輝, 「魏晉六朝志怪小說情愛作品中的女性形象」, 『福州師專學報』 22: 1, 2002, 19쪽.

37) 「賣胡粉女」, “君賣此粉, 將欲何施?”, “意相愛樂, 不敢自達, 然恒欲相見, 故假此以觀妾耳!”

38) 「賣胡粉女」, “薄暮果到, 男不勝其悅, 把臂曰: 「宿願始伸於此!」 歡踊遂死。女惶懼。不知所以, 因遁去, 明還粉店。……當就殯斂。發篋笥中, 見百餘裹胡粉, 大小一積。其母曰: 「殺吾兒者, 必此粉也。」入市遍買胡粉。……女曰: 「妾豈復慙死? 乞一臨尸盡哀!」 縣令許焉。徑往撫之慟哭, 曰: 「不幸致此, 若死魂而靈, 復何恨哉?」 男豁然更生, 具說情狀, 遂爲夫婦, 子孫繁茂。”

위 이야기는 남녀 주인공이 사랑하지만 남성의 죽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되고 이 과정을 극복하면서 두 사람은 행복한 결실을 맺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남자 주인공의 죽음을 전후로 한 사랑의 위기와 극복 과정에 대한 묘사는 이야기의 긴장감과 함께 원만한 결말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여성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한 남성은 자신의 사랑을 진지하게 표현하고, 이에 여성은 감동해 남성의 마음을 받아들인다. 이 때 두 사람의 사랑에는 재산이나 신분 차이라는 부수적 요건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기에, 당시 부모 주선과 매파를 통해 집안끼리 맺어지던 혼인풍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의 갑작스런 요절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죽은 아들의 시신에서 분을 발견한 남성 부모는 이와 관련된 사람이 범인이라 여긴 까닭에 분파는 여성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분명 억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조시기 사회풍조를 고려한다면 이야기 속 여성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만한 어떤 방법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는 여전히 여성에게 유가의 三從四德과 정절 등을 이행하길 요구하고 속박하던 봉건사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파는 아가씨 모습에는 당시 사회적 가치관에 부합되는 전통적 여성형상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파는 아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대신 남성 시신 앞에서 “만약 죽은 후에 영혼이 있다면 죽는다고 해도 무슨 원망을 하겠는지요?”라고 마지막 통곡을 한다. 누명을 벗을 수 없기에 그녀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죽은 남성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이다. 분파는 아가씨의 토로와 통곡으로 청년은 되살아나고, 이후 두 사람은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다.

여기에서의 남녀 주인공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사랑하고, 죽음이라는 장애를 통해 신분차이까지 극복하면서 행복한 결실을 맺게 된다. 특히 분파는 아가씨에게 반한 청년은 다른 유형의 사랑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들과 달리 사랑의 위기상황에서도 여성을 배신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를 위해 희생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분 등을 초월한 사랑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파는 아가씨 형상에는 온순하고 정절을 지키는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여성의 모습 이외에 진보적인 모습도 투영되어 있다. “君께서는 이 분을 사서 어디에 쓰시는지요?”라며 먼저 남성에게 이야기를 건넸다면, 남성의 고백에 몰래 만날 것을 허락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죽음 앞에서도 현령에게 “시신 앞에 가 실컷 울게만 해주십시오.”라며 당당하게 요청하는 장면에서도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진보적인 여성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이야기에는 신분차이 등의 요건에 얽매어 있던 봉건질서의 사회풍조에서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녀 사랑에 대한 진지한 마음과 다소 진보적인 모습으로 대변되는 분파는 아가씨의 형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龐阿」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 石氏의 딸은 남성 주인공 방아를 보고 첫 눈에 반해 그를 사랑하게 된다.

방아는 외모가 준수하고 태도가 의젓한 사람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석씨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 안에서 그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다. 얼마 후 방아는 석씨 딸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게 되

었다. 방아 치는 질투가 매우 심한 여인이어서 이 사실을 듣고 여종을 시켜 석씨 딸을 결박해 그녀 집으로 끌고 가라고 했다. 그러나 도중에 석씨 딸은 한 줄기 연기가 되어 사라져버렸다.……방아 치는 경계를 더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석씨 딸이 방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직접 그녀를 잡아 석씨 집으로 끌고 갔다. 석씨가 놀라 눈을 휘둥그레 뜨며 “방금 내가 안채에서 나왔을 때에도 내 딸은 어미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지금 이곳에 있단 말입니까?”라 하며 종들을 시켜 딸을 불러오게 하니, 묶여있던 딸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석씨는 이것은 필시 무슨 연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딸에게 따져 물어볼 것을 아내에게 시켰다. “예전 방아님이 대청에 앉아 계실 때 소녀가 몰래 훔쳐본 적이 있었지요. 그 후로 그 분을 뵈러 꿈속에 찾아갔던 것 같은데, 그 댁에 들어가다가 그 분 처에게 결박당한 것 같아요.”라고 석씨 딸은 대답했다. 석씨는 “어찌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있단 말이나! 진정 사모하여 혼령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 사라진 것도 혼령일 것이야!”라며 탄식했다. 이후로 석씨 딸은 다른 이에게는 시집가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이듬해 방아 치가 몹쓸 병에 걸려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어 죽자, 방아가 석씨 집에 납폐를 보내 석씨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sup>39)</sup>

이것은 중국문학사 최초의 ‘離魂’ 유형의 이야기로, 唐代 陳玄祐(779 전후)의 『離魂記』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혼’이란 영혼이 신체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기이한 제재는 남녀의 사랑에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데 활용된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구애할 수도 없다면 꿈에서나 영혼간의 만남만이라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이혼’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아」의 남녀 주인공 방아와 석씨 딸 역시 그들의 사랑과 혼인과정에 이혼 제재가 활용되어 두 사람 사랑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석씨 딸은 준수한 외모와 의젓한 태도를 갖춘 방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혼인한 사람인지라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연모하는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석씨 딸은 육체를 떠나 혼령으로나마 방아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석씨 딸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을 여기에서는 “한 줄기 연기가 되어”, “묶여있던 딸이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이런 기이한 일에 대해 그녀는 방아의 풍채에 반해 그를 만나기 위해 “그 분을 뵈러 꿈속에 찾아갔던 것 같다.”고 부모에게 말한다. 사람의 풍채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표준일 뿐 아니라 자신이 이성을 유혹하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요건일 뿐인데, 석씨 딸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남성의 풍채에 반해 이혼의 형태일지라도 그 사람과 만난다. 이것은 당시 뿐 아니라 현재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이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부모의 주선과 매파의 중매로 맺어지던 당시 혼인풍습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체에서 혼령이 빠져나와 버렸다는 이와 같은 발상은 당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석씨 딸은 이후 다른 이와는

39) 「龐阿」, “有龐兒者, 美容儀。同郡石氏有女, 曾內賭阿, 必悅之。未幾, 阿見此女來詣阿。阿妻極妬, 聞之, 使婢縛之, 送還石家, 中路遂化爲煙氣而滅。……阿婦自是常加意伺察之, 居一夜, 方值女在齋中, 乃自拘執, 以詣石氏, 石氏父見之愕眙, 曰: 「我適從內來, 見女與母共作, 何得在此?」即令婢僕於內喚女出, 向所縛者奄然滅焉。父疑有異, 故遣其母詰之。女曰: 「昔年龐阿來廳中, 曾竊視之。自爾仿佛即夢詣阿, 及入戶即爲妻所縛。」石曰: 「天下遂有如此奇事! 夫精情所感, 靈神爲之冥者, 滅者蓋其魂神也。」即而女誓心不嫁。經年, 阿妻忽得邪病, 醫藥無徵, 阿乃授幣石氏女爲妻。”

혼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방아에 대한 사랑과 절개를 지키다가 방아 아내가 죽은 후에야 방아와 혼인하게 된다.

자신이 반한 남성에게 사랑을 숨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를 만났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얻기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와 같은 석씨 딸의 모습에서 진보적 여성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애하는 대상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도덕윤리 같은 것들은 넘어야 할 장애일 뿐이기에 그녀는 ‘이혼’의 방식으로 구애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이 아니라면 혼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혼’이란 결국 도덕윤리라는 당시 사회적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타계 공간에서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석씨 딸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 적극적인 일 뿐 아니라 방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으로도 묘사되고 있으므로, 그녀는 진보적인 동시에 이상적인 여성형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명으로 이행되던 당시 혼인풍습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육조인들의 심리가 진보적 여성 석씨 딸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아 아내 역시 봉건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형상과는 다르게 묘사되었다. 남성 중심의 부계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여성은 순종을 미덕으로 삼고 삼종사덕과 정절을 지키는 온유하고 선량한 여성이다. 그런데 방아의 아내는 석씨 딸을 질투해 “여종을 시켜 석씨 딸을 결박해 그녀 집으로 끌고 가라.”고 말하며 남편의 또 다른 여성을 몰아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처한다. 남편의 여자에 대해 아내는 질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투기심 가득한 언행은 분명 당시 추구하던 이상적 여성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방아 아내의 행동은 구애에 있어 대담했던 석씨 딸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방아」에 등장하는 두 여성은 그들의 행동이 자유로운 사랑이든 투기의 표현이든 간에 당시 육조사회에서 추구하던 가치관이나 전통적인 이상적 여성형상과는 다르게 묘사되었다. 당시 육조인들의 심리에는 아름답고 선량하며 순종적인 모습의 전통적 여성을 갈망하면서도 기존의 봉건질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랑하고 혼인하고 싶은 소망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이야기의 분파는 아가씨와 석씨 딸은 당시 육조인들의 바램이 투영되어 진보적이며 이상적인 여성형상으로 창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나오는 글

『유명록』은 유명을 관통하여 인식하던 육조시기 사회풍조를 반영하여 인간을 비롯하여 요괴, 귀신같은 기이한 존재들을 등장시켜 그들을 주체로 이야기를 전개한 남조시기의 대표적인 지괴소설이다. ‘사랑’은 인간 역사 이래 한 번도 소홀하게 다루어진 적 없는 영원한 명제이며, 사랑·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유명록』에서 가장 높은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 육조시기 사회풍조와 여성형상을 살펴보았다.

‘신(선인) - 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의 대표작은 「劉晨·阮肇」과 「黃原」이다.

「劉晨·阮肇」의 유신과 완조, 「黃原」의 황원은 여신 신분의 타계의 여성을 만나 그곳에서 혼인하였다가 현실세계로 환속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 전개는 혼란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벗어나 이상세계를 갈망하던 육조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조인들이 동경하는 세상이란 현실세계에서는 접할 수 없는 어떤 비현실적 환상 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사람들과 정겹게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진입한 타계의 모습은 “화나무와 버드나무가 네거리에 늘어서있는” 현실에서도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정경으로 묘사되었다. 신-인간의 사랑과 혼인 이야기에는 또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안정한 현실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과 혼인에 대한 갈망을 타계 이상적인 여성으로 형상화하여 상상 공간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계에서 만난 여성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자태와 용모가 빼어나고”, “말소리가 맑고 부드러운” 봉건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형상으로 묘사되었다.

‘요괴 - 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의 대표작은 「淳于矜」과 「常醜奴」이다.

순우궁과 상추노는 용모와 자태가 빼어난 여성을 만나 구애하고 자신의 여자로 삼았다가 여성의 정체가 요괴임을 안 후 그들을 죽이거나 매정하게 쫓아 버린다. 이것은 아름다운 여성을 갈망하는 남성의 본능 뿐 아니라 이에 순응하는 여성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들은 요괴 신분이지만 하나같이 자신이 선택한 남성에게 해를 끼친 적도 복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요괴 - 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성의 박정한 모습과 이에 순종하는 비극적 여성형상에는 당시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던 봉건사회의 유가적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 인간’의 사랑·혼인 이야기의 대표작은 「賣胡粉女」와 「龐阿」이다.

「賣胡粉女」의 분파는 아가씨와 부잣집 청년, 「龐阿」의 석씨 딸은 모두 풍채와 용모에 반해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죽음이나 離魂 과정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여기에는 신분이나 조건 등을 초월해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갈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파는 아가씨 형상에는 온순하고 정절을 지키는 봉건사회의 이상적 여성의 모습 이외에 진보적인 모습도 투영되어 있다. 남성의 고백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현령에게 “시신 앞에 가 실컷 울게만 해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씨 딸은 방아의 풍채에 반해 구애하려 하지만 방아가 기혼자였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끝까지 방아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석씨 딸의 모습에서 진보적 여성형상을 살펴볼 수 있다. 구애하는 대상과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도덕윤리 같은 것들은 넘어야 할 장애일 뿐이기에 그녀는 육체를 벗어나 혼령으로 남성을 만난다. 석씨 딸은 자신의 사랑을 위해 적극적일 뿐 아니라 방아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모습으로도 묘사되고 있으므로, 그녀는 진보적인 동시에 이상적인 여성형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명으로 이행되던 당시 혼인풍습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연애와 혼인을 갈망하던 육조인들의 심리가 진보적 여성형상인 분파는 아가씨와 석씨 딸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金錫夏,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서울: 日新社, 1973.

金學主, 『中國文學史』, 서울: 新雅社, 1993.

소혜왕후 한씨(지), 陸完貞(역), 『內訓』, 서울: 열화당, 1989.

劉向(지), 김장환(역), 『列仙傳』, 서울: 예문서원, 1996.

張貞海 譯註, 『幽明錄』, 서울: 살림, 2000.

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卞貴南, 「六朝 佛教類 志怪小說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2.

卞貴南, 「漢譯經典과 佛教類志怪小說의 영향관계 小考」, 『中國語文學』 41, 2003.

齊裕焜, 李騰淵(역), 「中國古代小說演變史 - 第1章 志怪・傳奇小說 概要 -」, 『中國小說研究會報』 18, 1994.

## 중문

魯迅, 『魯迅全集(9)』, 「中國小說史略」,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

王明, 『抱朴子內篇校釋』, 北京: 中華書局, 1996.

楊勇,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唐)魏徵 等 撰, 『斷句本 二十五史』,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4.

(後晉)劉昫 撰, 『斷句本 二十五史』,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4.

(南朝宋)劉義慶, 鄭晚晴輯注, 『幽明錄』,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88.

李劍國 輯釋, 『唐前志怪小說輯釋(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1.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1.

李學勤 主編, 『春秋左傳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臧克和・王平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宋芸, 「魏晉南北朝志怪小說《幽明錄》題材內容分析」, 『長城』, 2013.

劉明華, 「理想性・神秘性・歷史眞實 - 對“桃花源詩并記”的多重解讀」, 『文學遺產』 1, 1999.

王天輝, 「魏晉六朝志怪小說情愛作品中的女性形象」, 『福州師專學報』 22: 1, 2002.

何散芬, 「魏晉南北朝志怪小說的敘事結構初探」, 『湖北經濟學院學報』 3: 6, 2006.

\* 이 논문은 2016년 5월 26일에 투고되어,

2016년 6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6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7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 The Social Climate and Female Images of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Reflected in Stories Related to Love and Marriage of *You Ming Lu* (『幽明錄』)

Lee, Inkyung\*

Since stories with a variety of themes are written using abundant materials in the Weird Fictions(志怪小說) *You Ming Lu*(『幽明錄』) which represents Southern Dynasties, they allow one to examine the social climate, values and female images of Wei Jin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made an analysis of what was written focusing on these stories as the stories related to love and marriage of 『You Ming Lu』 directly reflect lifestyles and mentality of people in those days who had to live unstable lives in the troubled era of Six Dynasties.

「劉晨·阮肇」 and 「黃原」 is a typical work of a love and marriage story between 'The God(神) and human.' Longing for love and marriage pursued by people in Six Dynasties was reflected in the marriage story between a goddess and a common human male in the other world: Longing for love and marriage of people in those days which was difficult to realize in an unstable real world, was embodied in the imagined space using an image of an ideal woman in the other world.

「淳于矜」 and 「常醜奴」 is a typical work of a love and marriage story between 'The monster and human.' While men in the story are seen to be cold-hearted killing or exorcising women after knowing that the women who had been targets of their love are proved to be monsters, the women are portrayed as tragic female images who are obedient rather than taking revenge, which indicates that social Confucian values in those days are reflected in the work.

「賣胡粉女」 and 「龐阿」 is a typical work of a love and marriage story between 'human and human.' A progressive female image is reflected in the image of a girl who sells cosmetics being active in loving someone and freely expressing her opinions without hesitation. It's possible to see a progressive female image also in Mr. Seok's daughter who was actively trying to win love

---

\* Non-tenure Track Assistant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even using a way of 'soul leaving from body' and did not give up loving Banga until the end. It can be said that mentality of people in Six Dynasties who were eager for free love and marriage getting out of wedding customs in those day which were supported by their parents was expressed through Mr. Seok's daughter and an image of a progressive girl selling cosmetics.

**[Key Words]** Real world and supernatural world(幽明), love, marriage, social climate, female image